

# 신산업 유치·시민주권...부강한 통합특별시 시대 연다

## 민형배 통합특별시장 당선자 공약분석

7월1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 통합 광역지방자치단체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초대 수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반도체 공장 유치, 시민주권 정부 등 핵심 공약 실현에 본격 나선다.

민 당선자는 '압도적 성장', '더 큰 전남광주'를 기치로 정부의 20조원 규모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발판 삼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 ◇1년 내 10조 규모 반도체공장 유치

인구소멸과 청년 유출 등 통합특별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 해소를 위해 민 당선자는 일자리·경제·에너지 분야 공약으로 재계 300조원 지역투자, '호남 200조원 배정'을 내세웠다.

300조원 규모의 대기업 지역투자 계획 가운데 200조원을 호남에 집중 배정함으로써 산업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용 차등요금제 및 RE100 직공급 체계 구축,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 지역 대학 연계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전남·광주 1시간 생활권 교통망 혁신 등을 300조원 규모 기업 투자 유치 방안으로 제시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햇빛 기본소득 마을, 산업

### ●민형배 당선자 분야별 공약

분야	주요공약
일자리·경제·에너지	-재계 300조 지역투자 '호남 200조 배정'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초광역 수소-지역전략망 통합 플랫폼 구축 -10조원 규모 이상 반도체 공장 유치
교통·SOC	-10-30-60 교통대전환 -광주송정역·순천역·목포역 3대 복합환승 거점 -요금체계 단일화 통합 환승 요금제 도입
인구·청년·복지	-초광역 24시간 돌봄모형 구축 -대한민국 최초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청년 정치 주체 참여 -순천대·목포대 공동 운영 통합형 분산의대
농업·해양·수산·환경	-전남광주 마을 월급 프로젝트 -소득 중심 농업 대전환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 제시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지치·행정·통합	-기초지자체 권한 강화 -주민지치 확대 -농산어촌·섬 지역 최소 보장·우선 지원 명문화 -권역별 책임 부시장제
문화·관광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전남광주문화정책수호 -전남·광주 성수동 30개 만들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200조원 호남 집중 배정·AI 생태계 구축 도시간 60분 연결 '10-30-60 교통 대전환' 긴급돌봄센터 숲지역 확대 돌봄 기본사회 마을 월급 프로젝트·소득 중심 농업 전환 글로벌 문화수도 도약기치 문체부 이전도

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 초광역 수소-지역전략망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미래산업 분야에서는 AI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AI 반도체 수도, 광주 자동차산업 AI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특히 RE100 인프라 완비, 물류·에너지 혁신, 공동 투자 파트너십 구축 등을 기반으로 취임 1년 내 최소 10조원 규모 이상의 반도체 공장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 ◇송정·순천·목포역 3대 환승 거점으로

민 당선자는 교통 분야 공약으로 '10-30-60 교통 대전환'을 제시했다. 집에서 10분 내 대중교통 접근, 일상생활 30분 내 해결, 광주-전남 주요 도시 간 60분 내 연결하는 광역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광역 간 선급행버스(BRT) 중심의 교통 혁신을 추진하고 중기적으로 광역 철도 구축, 장기적으로 철도·고속도로 확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민 당선자는 광주송정역, 순천역, 목포역을 3대 복합환승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내놨다.

광주송정역은 KTX·광역철도·광역BRT·도심 교통이 결합된 광역교통허브로, 순천역은 동부권 산업벨트와 광역교통이 연결되는 환승 중심지로, 목포역은 서부권과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서부권 교통허브로 각각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합 환승요금제 도입을 통해 요금 체계를 단일화하는 한편, 농어촌 공공교통 확대, 일정한 통합 교통패스 '남도패스', 단계적 무상 교통을 공약했다.

### ◇전남권 의대 '통합형 분산 모델' 제시

인구·청년·복지 분야 핵심 공약은 ▲초광역 24시간 돌봄모형 구축 ▲대한민국 최초 돌봄 기본사회 특별시 조성 ▲전남광주특별시 여성 부시장 임명 ▲'특(特)수저' 빛 없이 시작하는 도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 선출된 민형배 당선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치로 내건 '압도적 성장'과 '더 큰 전남광주' 실현을 위한 핵심 공약 구체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아래는 광역교통허브로 조성될 광주송정역 일대. /광주매일신문DB



한다는 복안이다.

### ◇농어촌 소득 강화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

농어촌 분야 1호 공약은 전남광주 '마을 월급 프로젝트'다. 유네스코 세계관광청 주관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인증을 통해 협동조합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 수익 40%를 주민 배당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원수 소득마을, 농수산물 가공 소득마을, 햇빛바람 에너지 소득마을 등으로 농어촌 추가 소득 창출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중심 농업 대전환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농정 기준의 소득 전환, 고부가가치 품목 집중, 유통 구조 혁신, 농식품 가공 산업 육성, 청년농 정책의 성공 모델 전환, 식량안보 정당한 보상, 에너지·AI 결합 등 7대 과제를 추진한다.

복지·의료 등 다방면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도서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섬 기본사회권' 책임제 제시로 이동·의료·소득권을 보장하는 한편, 여객선 공영제 확대 등 해상교통 공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공항 이전부지 인근부터 나주까지 연계하는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 본격 추진, 한국한식대학교 설치법 대표 발의, 전남·광주 '물순환도시' 대전환 등도 주요 공약이다.

### ◇시민 주권 명문화 현장행정·권한 확대

기초지자체 권한 강화와 주민지치 확대는 자치·행정·통합 분야 공약의 핵심 축이다. 주민세를 읍·면·동으로 환원해 마을 자치재정을 확대하고 읍·면·동장 주민선택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주민지치회에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부여해 '마을자치정부'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강력한 실행 행정과 시민주권 행정, AI 기반 미래 행정을 기반으로 27개 시·군·구 권한 강화와 읍·면·동 현장행정 확대를 공약했다.

### 시 ▲청년

정치 주체 참여 등이다.

24시간 돌봄모형은 긴급돌봄센터를 27개 시·군·구로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기본사회 특별시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전환, 광역·기초-마을을 연결하는 3단계 돌봄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빛 없이 시작하는 도시 실현을 위한 세부 전략은 권역별 만원주택과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연계한 '청년 주거안심 3보장제' 시행, 전략산업-청년 연결 '신성장 청년 커리어패스' 운영, '청년 예산제' 도입 등이다.

전남권 국립의대 설립과 관련, 순천대와 목포대가 공동 운영하는 '통합형 분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예산 또한 균등하게 투자하는 한편, 부속병원을 광 권역에 모두 건립

통합특별시 운영 원칙으로는 성장통합·균형 통합·기본소득·녹색도시·시민주권을 제시했다. 농산어촌과 섬 지역 최소 보장·우선 지원 명문화, 균형발전회계 운용, 권역 대표 부시장 체계 등도 포함됐다.

청사 운영의 경우 권역별 책임 부시장 체계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무안·광주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내놨다. 특별시장이 일정 기간 권역별로 순환 근무하고 주청사 문체는 취임 이후 3개 청사 운영 체계를 가동한 뒤 시민들과 함께 판단할 계획이다.

### ◇전남·광주 문화 동반성장·정책성 강화

문화·관광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도 핵심 공약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전남광주 특별시 이전 ▲전남광주 문화정책수호 ▲글로벌 문화수도 도약 ▲전남광주문화벨트 구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지역 콘텐츠 생산 중심 플랫폼 전환 ▲문화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6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전남·광주 성수동 30개 만들기,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3·5·7 머무는 관광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3·5·7 머무는 관광'은 직장인·가족은 3일, 실버관광객은 5일, 외국인은 7일 이상 머무는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 통합관광관제센터 설치, N-FC 기반 관광투어패스 도입, 광역 체류형 MICE 모델 구축, 복합리조트·체류형 숙박시설·쇼핑 센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광주 성수동 30개 만들기' 공약은 공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민간투자 유도 패키지, 보행·체류형 거리 조성, 임대료 안정 및 장기 임대 지원 등을 통해 특색 있는 문화상권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시원 기자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으로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 New Smart Hospital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시작합니다.



###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사업기간 2026~2032년) 2028년 착공 예정 / 2032년 준공 및 개원 예정

